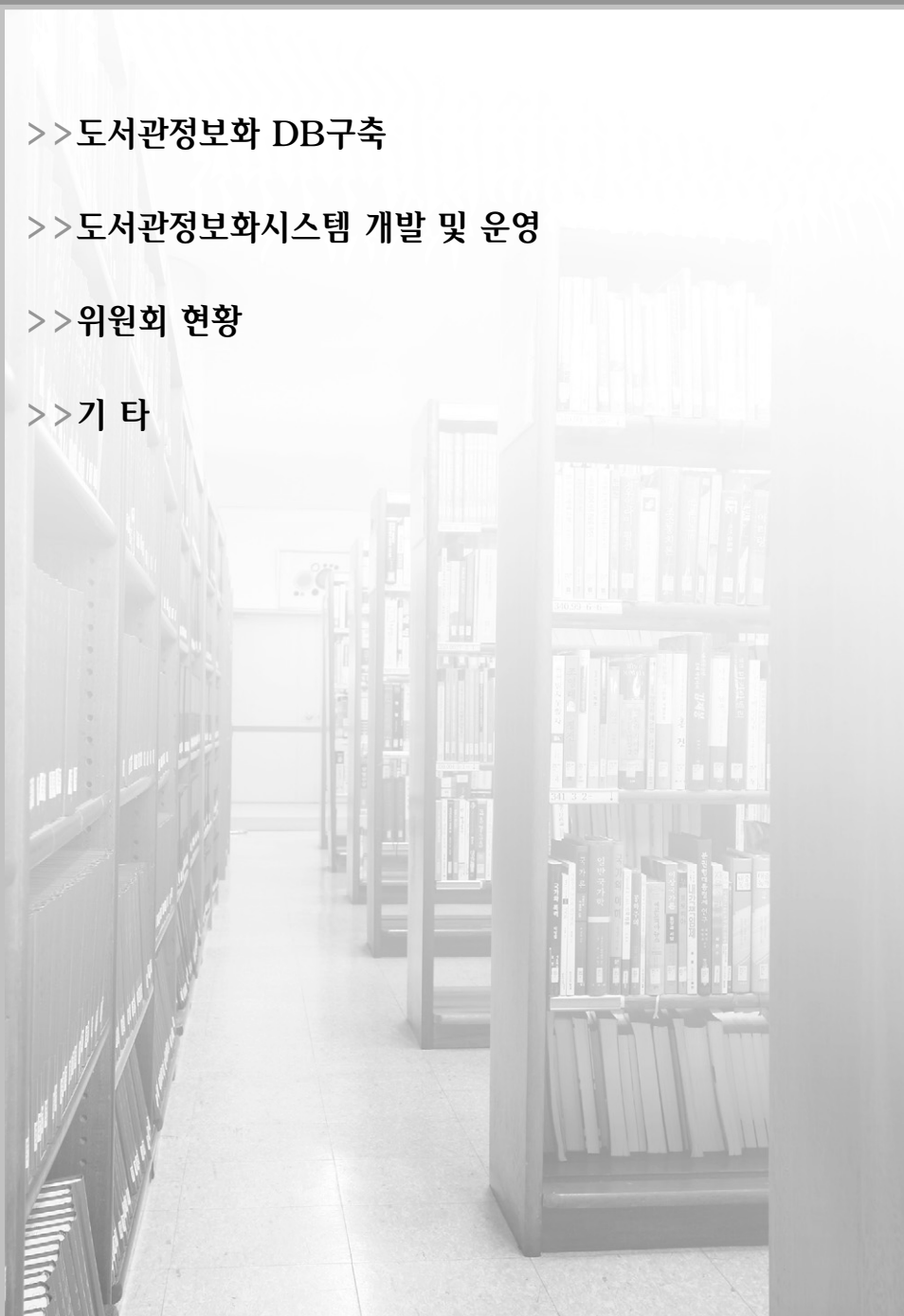
4 도서관정보화

>>도서관정보화 DB구축

>>도서관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위원회 현황

>>기 타



4 도서관정보화

4.1 도서관정보화 DB구축

"도서관정보화 종합추진 계획(2000. 3)"에 따라 2000~2002년까지 도서관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H/W) 조성과 핵심적인 프로그램(S/W) 및 컨텐츠(C/W) 확충에 주력하였던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보화 1단계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8월에 발표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서관정보화DB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1) 국가자료종합목록 DB 구축

국가자료종합목록은 국민들에게 전국 공공도서관 및 행정부처 자료실의 소장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어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파악한 후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6년에는 전국 공공도서관 및 행정부처 자료실의 소장 목록 78만건을 추가로 구축하여, 총 500만건의 서지데이터와 1,960만건의 소장데이터를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과 홈페이지(www.nl.go.kr/kolisnet)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이미 구축된 서지데이터는 편목작업에 공동 활용하여 인력과 예산 절감 효과 및 목록 표준화체제를 확립하여 국가서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2) 국가자료목차정보 DB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 접근점을 목록에서 목차까지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문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목차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다. 2006년에 구축된 7만8천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총 124만책의 목차정보를 구축하였다.

목차정보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 및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 도서

관들이 목차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목차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목차정보의 다운로드는 2004년 3월 전국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친 후 실시하였으며, 목차정보의 전국적인 활용은 이용자의 정보접근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3) 주요자료원문정보 DB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하고 있는 국가자료 중 학술적 · 정보적 가치가 있는 주요자료를 대상으로 원문정보 DB를 구축, 정보의 검색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원문DB서비스는 전 국민이 신속하게 지식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6년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 특화DB개발을 위하여 2005년도에 기초자료연구 수행에 의해 선정된 동북아 관련 단행본 등 2만책 734만면의 원문정보를 구축하였다.

주요자료 원문정보DB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 및 국가전자도서관(www.dilibrary.go.kr)을 통해 357,775책 100,451,259면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이중 160,664책 50,123,962면은 저작권이 있는 원문자료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한국복사전송권 센터와 협약을 맺은 도서관의 지정된 PC에서만 이용 할 수 있다.

≪ 원문정보DB구축현황 ≫

대상자료	책 수	면 수
1945~1997년 발행 국내 주요 단행본	152,848	48,648,689
조선총독부발간 한국 관련자료	11,232	3,452,037
한국고전백선	615	92,450
문화관광부 발간자료	1,864	636,951
고서	92,993	13,838,662
학위논문	7,816	1,475,273
학술지	43	13,487
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1894~1945)	164	147,133
신문(~1945)	361	132,137
연속간행물 귀중본	3,036	179,000
1945년 이전 발간자료	81,092	31,534,106
한글판 고전소설	915	88,554
신문학 100년 대표소설	654	203,873
고문서	4,051	5,576
고지도	91	3,331
합 계	**357,775**	**100,451,259**

4)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DB 구축

2003년부터 소장 연속간행물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DB를 구축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를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서 기사정보까지 확대하여 정보접근점을 극대화하였다.

기사MARC 뿐만 아니라 기사색인의 초록과 목차를 구축하여 학술기사의 완벽한 서지정보제공을 추구하고 있으며, 민간상용(원문)DB 및 타 기관 구축 원문 DB를 최대한 연계하여 원문정보까지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DB구축은 타 기관과의 중복구축을 피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였다.

2006년에는 9만건을 구축하여 총 58만건을 구축하였으며, 2004년 3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5)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 구축

정보격차해소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어온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 구축 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보 소외 계층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DB는 대학기본학습서를 텍스트 DB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화면낭독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성으로 서비스 받도록 한 것으로,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이 소속된 주요 학과의 대학기본학습서를 우선 구축 대상으로 하여 2006년 구축된 431책 203,960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3,416책 1,301,026면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DB는 2004년 3월부터 국가전자도서관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http://sigak.nl.go.kr/dl)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6) 시각장애인도서관 종합목록 DB 구축

시각장애인도서관종합목록 DB는 전국의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소장 목록을 제공받아 표준화된 기계가독형목록(MARC)으로 구축한 것으로써, 이용자들이 한번의 클릭만으로 해당 자

료의 소장 도서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자료 검색 후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각장애인 도서관간 자료의 중복 제작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목록데이터를 편목작업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목록의 표준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된다.

2006년에는 19개 시각장애인도서관(자료실)의 소장목록 2만건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시각장애인도서관 종합목록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홈페이지(www.nl.go.kr/kolisnet)와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sigak.nl.go.k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4.2 도서관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운영

1) 국립중앙도서관통합정보시스템(KOLIS)

1984년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본되는 자료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 시스템 확장 · 개선사업을 통해 도서관 전체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다.

1999년 10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윈도우 기반의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관리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운영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서관정보화의 새로운 미래지향적 운영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 및 업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고자 현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각 세부기능별 개선 및 보완작업을 매년 추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정보관리 운영체계를 확립 하였고, 2005년에는 유니코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6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가자료종합목록DB로 공동 구축하여 활용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윈도우 기반의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Korea Library Information System-NETwork)을 개발하여 2001년 6월부터 서비스 개시하였으며, 2006년 말 현재 전국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KOLASII통합형은 420개관에 보급하여 운영 중이다.

KOLIS-NET은 윈도우 기반에서 모든 자료관리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대용량의 자료를 관리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운영,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개발된 시스템이다. KOLIS-NET을 이용하여 이용자는 전국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도서관들은 목록 데이터를 내려받고 올리기를 함으로써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KOLIS-NET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료를 단행자료와 연속간행자료로 구분하여 이들을 통합관리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KOLIS)과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Ⅱ)의 신규 소장 자료에 대한 소장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의 통합 연계가 가능하다. 넷째, 전거관리 기능이 있다. 다섯째, Z39.50 프로토콜을 이용한 국내외 분산 통합 검색 기능이 있다. 여섯째, 각종 도서관정보 관리 기능이 있다. 일곱째, 서지 및 소장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기능이 있다.

아울러, 국내외 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부터 유니코드 체계로 전환 및 수서참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출판유통진흥원 데이터를 제공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nl.go.kr/kolisnet 이다.

3)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개발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서지정보의 전산화 및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이 2005년 12월 2일자로 KS제정이 되었다. 이 통합서지용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2006년 1월에 한국도서관협회와 자료출판 및 보급에 관한 체결을 맺은 후 8월부터 출판 및 보급에 들어갔다.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은 지식정보표준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하여 목록기술규칙을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을 적용하였으며, 풍부한 예시와 적용 지침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한 교육은 2006년 하반기에 사서능력발전과에서 전국사서들에게 실시하였다.

4) 출판시도서목록서비스(e-CIP) 운영

출판시도서목록서비스시스템(e-CIP)은 2002년 7월 2일부터 본격 개시되어 2002년 12월까지 시범운영되었으며, 6월에 개최된 CIP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출판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2월까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미국 · 영국 · 캐나다 등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CIP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개발 활용된 사례가 없었던 관계로 2002년에는 시범운영을 통해 출판계 · 도서관계 ·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기능별 개선 및 보완작업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출판물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관리체계 구축을 이루고, 산업적으로는 출판 예정 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따른 출판물 사전 홍보, 판매 증대 등을 통한 출판물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중이다. 아울러, 국내외 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부터 유니코드 체계로 전환하여 서비스 중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nl.go.kr/ecip 이다.

5)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운영

한국 고전적에 대한 목록, 해제, 원문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고전적 소장처를 연계하여 관련기관 및 담당자로 하여금 목록 데이터 접근 및 표준화된 목록DB 구축을 용이하도록 서비스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정보통신부로부터 2005년도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받아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회원기관(2004년 3월 창립, 규장각 등 42개 기관) 중 규장각 등 28개 참여기관으로부터 고서목록DB 312,052건을 제공 받아 DB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서울대 중앙도서관 등 22개 기관의 목록 데이터베이스 89,252건을 수집해서 종합목록으로 구축하였으며, 또한 유니코드기반으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여 서비스 중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nl.go.kr/korcis 이며, 한국고전적종합목록 독립형 주소는 korcis-net.nl.go.kr 이다.

6)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보존 프로젝트 OASIS 운영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는 디지털시대 인류 지적 활동

의 결과물들이 종이에서 소멸성이 강한 디지털 형태로 급속히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 보존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후대에 교육 및 연구용 자료로 제공 목적으로 2004년 1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OASIS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수집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는 [자료검색], 기관 및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가치 있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기증과 추천을 위한 [디지털자원 기증 · 추천], 수집된 디지털 자원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열람 · 조회할 수 있는 [저작권관리], OASIS 프로젝트의 국외 홍보를 위한 [About OASIS], 해외 도서관의 웹 자원 아카이빙 프로젝트 현황을 둘러 볼 수 있는 [관련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은 수집 대상 자료의 간략정보, 포맷, 저작자 정보, URL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여 웹 로봇이 수집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웹 자원을 수집 · 보존 · 활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디지털 자원 우수 기증기관 · 개인 등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OASIS 사업 관련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제도 운영, 각종 홍보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관련 기관 및 개인 등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다.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 · 보존 사업이 현재가 아닌 내일을 준비하는 사업이며, 미래세대에 문화적 정체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현재 한국인의 생활상과 지적유산을 담아가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디지털유산 보존의 핵심기관으로서 관련된 연구와 개발 및 기술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들과의 끊임없는 협력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한편,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공동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 · 보존 프로젝트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의 홈페이지는 www.OASIS.go.kr 이다.

7)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 구축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은 문화관광부의 '문화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라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2단계 사업 및 2001년의 국가전자도서관 경량화 사업을 완료하고 2002년에는 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맹인과 저시력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단축키, 문자 확대 및 축소 기능, 색상지정 등 장애인 스스로 다양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의 자동화 기능 및 정보활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환경을 최적화하고, 텍스트 원문을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정보화 환경 및 기반을 확장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 확장 ·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였

다. 2005년도에는 분류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KDC분류체계에 의한 정보검색 환경을 구축하였고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과 연계확장하여 이용자 검색자료의 서비스 폭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6년도에는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유니코드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메타검색기 재개발로 검색 속도 및 정확도를 높여 2007년 2월부터 서비스 중이다.

8) RFID적용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

첨단 무선인식(無線認識) 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관리, 관내 대출/반납 및 열람, 이용자 관리 등 업무 및 서비스 전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2005년에 걸쳐 RFID를 이용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카드시스템 구축, 자료 열람 시 사서의 개입 없이 이용자 스스로 관내 열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Self-CheckOut 장비 도입,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라이터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자료 관리체제 마련, 통합정보시스템(KOLIS)의 목록 DB와 완벽한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서관코드, 등록번호, 청구기호, 대출상태 정보의 도서 필수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태그 도입 및 자료 이용통계, 도서관 이용자통계 등을 산출하는 경영정보시스템(MIS)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6년도에는 자료실에서 사서의 개입없이 열람뿐 아니라 대출/반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자료이용기 도입,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라이터기 추가 도입 및 기 구축된 경영정보시스템의 통계시스템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MIS체계로 확대 구축하였다.

4.3. 위원회현황

1) 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로 1998년 6월 18일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254호로 국립중앙도서관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임기는 2년(연임가능)이며, 문헌정보분야 위원 5명, 컴퓨터통신분야 위원 4명, 당연직으로 정부유관기관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도 도서관정보화사업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문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 외 서지데이터의 표준화와 지식정보처리에 대한 표준 도구를 개발 보급하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정보표준화도구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서관 및 정보처리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2006년에 새로이 구성되었다. 5월2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DCMI(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가입에 대한 찬성과 한국대표로 메타데이터에 대한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하고 계신 오삼균 교수(성균관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 선출하였다. 그 외 논의 내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적용 시기, 기존 데이터의 통합서지용으로의 변환, 책자와 웹버전 형태로 발간하는 것 등이다.

4.4 기타

1) 한국메타데이터 활동

국립중앙도서관은 인터넷의 발달로 웹자원의 수집 · 정리 및 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필요성과 센터 설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향후 메타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설립에 앞서 우리도서관 직원들로 하여금 메타데이터를 이해하고 학습하여 향후 센터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10회의 메타데이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6년 4월에는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위하여 설립된 DCMI(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에 이사국으로 가입하여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핀란드에 이어 5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DCMI는 웹자원 정리에 필요한 더블린 코어(Dublin Core)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관련 문헌 발간 및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메타데이터 발전에 노력하는 기관이며, 현재 OCLC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DCMI에 가입함에 따라 ISO 표준인 더블린코어를 국내표준안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와 임무를 보장받고, 국제회의에서 국내안에 대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한국대표기관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더블린코어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하여 한국더블린코어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관련자료 및 회의자료를 수록하여 메타데이터 연구자 및 관련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 전국 도서관전산화 현황조사

전국 도서관전산화 현황조사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전산화를 촉진 ·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부터 매년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산화 현황 조사는 당해연도 전산화 실적(2005년 12월 31일 기준)과 다음해(2006년)의 전산화계획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도서관전산화의 물리적 기반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유실적,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및 서비스 현황, 소장자료 본문내용 디지털 현황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진다. 2002년부터는 Web 설문지방식을 도입하여 해당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6년 7월에는 총 1,542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중 공공도서관 452개관(88%), 대학도서관 342개관(78%), 전문 · 특수도서관 213개관(36%) 등 총 1,007개 도서관(65%)이 조사에 응하였는데, PC-Server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한 기관은 753개관(87%)으로 집계되고 목록데이터베이스는 150,178,816건을 구축하였으며, 소장자료 본문내용을 디지털화한 도서관은 368개관으로 조사되었다. 전산화 현황 조사결과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도서관연감 2006』에 게재되었다.